S#6. 2층 끝방 –day

현판 위에 ‘2차 오디션’이라 적힌 A4용지가 덧붙여 있다. 방 한 쪽에는 트로피와 상패가 놓인 유리장이 있고, 그 옆으로 프랑스 고전과 예술 책들이 가득 꽂힌 책장이 있다. 사무실 중간에 놓은 탁상위에는 극본과 시나리오들이 쌓여 있다. 방 모퉁이에는 컴퓨터와 복합기가 놓여 있고, 상중은 오디션을 위해 대본을 출력하고 있다.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 진동소리에 잠시 하던 행동을 멈춘다. 휴대폰 화면에 ‘위원장’이란 글씨가 보인다.

상중: 네네.

(cut to.) 2층 복도

직원의 안내대로 2층에 올라간 주희는 ‘2차 오디션’이라 적힌 A4용지가 붙어있는 방 앞에 도착한다. 노크하는 주희.

상중: 네, 들어오세요.

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주희. 캐주얼 정장을 입은 남자는 삼십대 후반에서 사십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이다.

상중: 위원장님 제가 지금 오디션 중이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. 네네. 들어가세요~

전화를 끊은 상중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주희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한다.

상중: 김상중입니다. 반갑습니다. 괜찮은 작품들을 많이 하셨더라구요.

주희: 네? 보셨어요?

상중: 제가 원래 오디션 보는 분들의 작품을 다 찾아보는 편이라서요.

잠깐 어색한 기운이 흐른다.

주희: 연기 하면 되나요?

상중: 연기는 충분히 봐서 됐고, 잘 해 봅시다 우리.

주희: (놀란듯) 네?

상중: 같이 하자고요.

주희: (얼떨떨하게) 감사합니다.

상중: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?

주희: 어떤 영화 찍는 지 알 수 있을까요?

상중: 이번에 기획하는 방향은 배우들이 함께 참여하는 작품을 만들려고 해요. 배우가 수동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작품. 그게 제가 추구하는 예술의 방향성입니다.

책장에 있는 데미안을 괜히 만지작 거리는 감독.

주희: 그럼 제가 뭐 준비해야할 게 있을까요?

상중: 주희씨 있는 그대로로 충분해요.

S#7. 대본리딩장 - day

커다란 빈 강의실 같은 곳에 책상들이 있다. 책상 위에는 종이명패가 있다.

상중: 저희 작품은 배우 중심으로 흘러갈 예정이고, 리얼리티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마당극처럼 진행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.

상중이 시나리오를 배우들에게 나눠준다. ‘코스타리카블루진’이라는 영어단어가 첫 장에 쓰여있다. 특이한 제목에 살짝 의아한 듯 넘겨본 대본이 텅 비어 있자 배우들 당황한다.

민혁: 감독님, 이게 뭐에요?

상중: 시나리오죠.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영화는 배우들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작품입니다. 시간이 촉박하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의견 얘기해보죠.

희원: 코…코스타리카블루진이 뭔가요?

상중: 코스타리카에 사는 독개구리입니다. 일명 딸기독화살개구리인데 청바지에 빨간 후드티를 입은 화려한 개구리죠.

주희: 감독님, 그래서 영화가 무스..ㄴ

상중: (O.L.) 아니 요즘, 여자든 남자든 치장하고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혈안이 되어있잖아요. 그런 사회를 보고 나는 정글이 떠올랐어.

연희: (갸우뚱거리며 나지막히) 정글..?

상중: 애니멀플로우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들 어떠세요. 원래 예술작품은 대사보다 몸짓이나 행동으로 표현해야 더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요.

희원: 그래서 내용이 뭔데요??

상중: 일단, 우리 지금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이 부족해서 같이 아이디어 좀 내 줬으면 좋겠어요.

주희: 방금 듣고 생각이 난건데, 독이 있는 여자인 것을 알면서도 달려들 수 밖에 없는 남자들의 모습을 그려보면 어떨까요?

민혁: 오 괜찮은데요? 뭔가 그렇게 하면 대사도 잘 녹일 수 있을 것 같아.

상중: 에이, 그건 좀 장미의 가시같은 느낌 아닌가? 진부하지.

연희: 그럼 뭐가 있을까요?

상중: 내가 보기엔, 독이라는 게 참 슬프도록 아름다운 것 같아. 우글거리는 포식자들 사이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치명적인 여자를 그려보면 어떨까? 정글을 헤매는 개구리의 몸짓을 살려서!

상중의 휴대폰 진동이 울린다.

상중: (‘위원장’이라 적힌 화면을 응시하면서) 잠시만 중요한 전화라서. 얘기 마저 나누고 있어요.

상중이 전화를 받으러 대본리딩장을 나간다. 배우들은 곧장 웅성대는 어수선한 분위기.

민혁: (주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) 아까 주희씨가 한 말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?

주희: (살짝 미소짓고) 근데 애니멀플로우는 뭘까요?

희원: 그게 원래 동물들 몸짓을 따라한 전신운동같은 건데. 늑대인간 송중기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?

---------

S#8. 2층 끝방 –day

현판 위에 ‘2차 오디션’이라 적힌 A4용지가 덧붙여 있다. 방 한 쪽에는 트로피와 상패가 놓인 유리장이 있고, 그 옆으로 프랑스 고전과 예술 책들이 가득 꽂힌 책장이 있다. 사무실 중간에 놓은 탁상위에는 극본과 시나리오들이 쌓여 있다. 방 모퉁이에는 컴퓨터와 복합기가 놓여 있고, 상중은 오디션을 위해 대본을 출력하고 있다.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 진동소리에 잠시 하던 행동을 멈춘다. 휴대폰 화면에 ‘위원장’이란 글씨가 보인다.

상중: 네네.

(cut to.) 2층 복도

직원의 안내대로 2층에 올라간 제희는 ‘2차 오디션’이라 적힌 A4용지가 붙어있는 방 앞에 도착한다. 노크하는 주희.

상중: 네, 들어오세요.

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주희. 캐주얼 정장을 입은 남자는 삼십대 후반에서 사십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이다.

상중: 위원장님 제가 지금 오디션 중이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. 네네. 들어가세요~

전화를 끊은 상중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주희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한다.

상중: 김상중입니다. 연희 배우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. 반갑습니다. 앉으세요.

주희: (조금 당혹스럽다는 듯이) 진이...한테요?

책장에서 일부러 빼놓은 듯한 프랑스어로 된 책과 잡지가 놓여있는 탁상 앞에 앉는 주희.

상중: 예전에 뒤풀이에서 알게 돼서 작품 같이 했었어요.

주희: 아...네. 그러시구나.

상중이 주희를 빤히 쳐다보다 이력서로 눈길을 돌린다.

상중: 괜찮은 작품들을 많이 하셨더라구요.

주희: 네? 어...(당황한 듯 말이 이어지지 않다가) 혹시 보셨나요?

상중: 제가 원래 오디션 보는 분들의 작품을 다 찾아보는 편이라서요.

의아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주희.

상중: 무슨 문제있으세요?

주희: (감동한 듯 경직되어 있던 얼굴이 풀어진다) 아 아뇨… 제 작품 찾아보신 감독님은 처음이라..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.

상중: (미소를 짓고는 이력서를 살펴보며)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?

주희: 충북 제천이요.

상중: 올라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?

주희: 대학생 때부터니까.... 10년 조금 넘었어요.

상중: 그럼 지금은 혼자 살아요?

주희: 네, 자취해요.

상중: 저희 작품이 배우가 핵심인 작품이거든요. 그럼 주희씨 준비해온 거 한번 볼까요?

목소리를 가다 듬으며 준비하는 주희 C.U.

주희: 너네들이 하는 말 다 변명이야. 결국엔 그냥 가지고 논거라고…

연기가 끝이 났는데도 제희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상중.

주희: 여기까진데 다른 거 더할까요?

상중: 아니요. 됐습니다.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얘기하세요.

주희: 조금만 더 작품 관련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?

책장에 있는 데미안을 꺼내는 감독.

상중: 감독 입장에서 캐릭터에 맞는 배우를 찾는 법이 뭘 거 같아요?

주희: 글쎄요... 이미지에 맞는 배우를 찾는 거…?

상중: 그쵸,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.

(김상중 톤으로) 그런데 말입니다,(피식 웃는 주희, 만족하며 말을 이어가는 상중) 만약 배우의 모습 자체에서 캐릭터를 따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? 주희씨를 기반으로 캐릭터 ‘주희’를 만든다면? 그게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.

배우가 수동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. 그게 제가 추구하는 예술의 방향성입니다.

골몰하며 얘기를 듣던 주희가 고개를 끄덕인다.

주희: 스스로를 연기한다… 알겠습니다.

상중: 오늘 수고했어요. 그럼 제가 다시 연락하겠습니다.

주희: 네 연락주세요, 감독님.

인사를 하고 나가는 주희가 문을 잡는 순간 감독이 말한다.

상중: 주희씨

뒤돌아보는 주희.

상중: 알을 깨고 나오려면 투쟁해야죠.